

거리두기 발 맞추는 대학… 중간고사 이후 대면수업 확대

한양대·세종대 등 대면수업 재개
수강인원에 따라 비대면도 병행
대교협 “중간고사, 대면수업 분수령”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하면서 서울 주요 대학에서도 대면 수업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한 한양대를 비롯해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이 대면수업에 들어갔다. 국민대, 서강대 등도 중간고사 이후인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대면수업을 시작한다.

앞서 코로나 여파로 지난 1학기 대부분을 온라인 수업을 했던 대학들이 당초 2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밭 집단감염 사태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다시 비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했던 대학들이 대면수업 늘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국외대는 13일부터 제한적 대면 수업인 'Switch 1 On' 방식으로 학사 운영을 한다. 수강생이 12명 이하인 과목은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13명 이상 일 경우엔 동시송출을 통해 대면·비대



등교하는 대학생들

/뉴스

면 병행수업을 갖는다.

한양대도 13일부터 대면수업을 진행한다. 수강인원 20명 이하인 이론 수업과 이론·실습, 실험·실습 수업은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수강인원이 21명 이상일 경우와 기존 수강 신청 시 원격 수업으로 안내된 강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연세대는 당초 혼합 또는 전체 대면 수업으로 개설했던 과목 중 20명 이하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동시 참석자 10명 이하 유지를 조건으로 대면 수업을 허용한다. 다만 인천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에서 진행되는 학부수업은 기존의 비대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수강 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하는 대면 수업을 하되 학생이 원하면 비대면 수업을 택할 수 있는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동시에 비대면 수업(실시간송출·대면수업 녹화본·사후 업로드 등)이 함께 제공된다.

성균관대 역시 수강인원이 40명 이상일 경우 온라인으로, 40명 미만일 경우 온·오프라인 혼합수업을 진행한다. 실험·실습, 실기 수업이나 발표·토론 중심의 소규모 교양수업과 대학원 수업 등은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국민대는 오는 27일부터 전공 이론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에 대해

대면 수업을 허용키로 했다. 국민대는 홈페이지 학사공지를 통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 병행 수업으로 운영하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방역 지침을 준수해 대면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강대의 경우 오는 11월 10일부터 대면수업을 재개한다고 최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다만 대면수업 시작 시기가 이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10월 중간고사가 끝나면 대학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학 총장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김인철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최근 국감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10월 3주 차,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대학들이) 대면수업을 확장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대학마다 상황과 입장이 다르고 코로나의 감염 비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맞춰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대면 수업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대학은 “아직 안심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인다. 숭실 대는 중간고사 이후에도 전면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온라인 대기화면(경기교사온TV)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맛보기’ 생방송

경기도교육청이 20일 중학교 자유학년 전로탐색을 위한 ‘고교학점제 맛보기’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 주제는 ▲고교학점제의 개념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제도 ▲진로 관련 선택 과목 안내 ▲고교학점제와 학생 진로 연결하기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학기 의미 있게 보내기 등이다.

방송은 현장 교사 2명과 중학생 2명이 패널로 참여해 주제별 실시간 자유 토론과 채팅창을 통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0일 오후 5시 경기교사온TV에 접속하면 된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이번 방송을 통해 중3 학생들이 고교 입학에 대비해 자신의 진로 세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학생의 삶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를 연계하는 교육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저소득층 위한 ‘꿈사다리 장학금’, 수혜는 100명 중 1명

교육위원회 이탄희 의원

“실질적 도움되는 장학제도 필요”

저소득층 생활장학금인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전체 취약계층 학생 16만9409명 중 2450명으로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의 저소득층 생활 장학금 수혜 인원이 전체 저소득 층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 사업은 꿈계획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까

(2019~2020년 전체 학생수 대비 선발 인원)

구분	중2	중3	고1	고2	고3	계
학생수	429,302	413,179	447,233	452,137	537,950	2,179,801
2020 선발인원	271	249	103	152	175	950
전체학생수 대비(%)	0.06	0.06	0.02	0.03	0.04	0.04
선발누계	497	616	410	395	532	2450
누계비율(%)	0.12	0.15	0.09	0.09	0.12	0.11

(단위 :명, 20년 4월 기준)

/이탄희 의원실

지 매월 25만원에서 45만원의 장학금을 제공한다. 성적순으로 매겼던 그간의 선발 기준에서 벗어나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지원 형식의 장학금 제도다.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사업 시행 2년차인 현재 수혜 인원은 전체 학생수 대비 0.1%, 차상위

학생수 대비 1.4%에 불과하다. 사업이 지속되면 수혜인원이 누적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사업 지속돼도 누계 수혜 인원은 5.6%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추측이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청춘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장학금들이 지급되고 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삼육보건대학교 전경

삼육보건대

수시 1차 경쟁률 14.7대 1

삼육보건대학교는 지난 13일 마감한 2021학년도 수시1차 입시에서 모집인원 200명에 2938명이 지원해 1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과별로 보면, 간호학과는 30명 모집에 751명이 지원해 25.0대 1, 치위생과는 32명 모집에 410명이 지원해 12.8대 1, 뷰티융합과 의료미용전공은 30명 모집에 211명이 지원해 7.0대 1, 뷰티융합과 뷰티 해어전공은 31명 모집에 378명이 지원해 12.2대 1, 노인복지과는 19명 모집에 217명이 지원해 11.4대 1, 아동보육과는 29명 모집에 299명이 지원해 10.3대 1, 의료정보과는 29명 모집에 672명이 지원해 23.2대 1을 기록했다.

전형별 높은 경쟁률은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는 간호학과가 62.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전형에서는 의료정보과가 46.8대 1 간호학과는 35.7대 1을 기록했다. 또한 간호학과 대졸자전형은 31.4대 1, 치위생과 대졸자전형은 13.0대 1을 기록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교육 맞손 수험생 1인당 평균 4.73회 수시 지원

지역사회협업 프로그램 업무 약정

호서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On&Off’ 지역사회 산학협력 캠퍼스 ‘지역사회협업(Unis+ry) 프로그램’ 업무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산학협력 기반 사회맞춤형 교육사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 약정식을 통해 양 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실시간 사이버 교육 환경 조성 ▲[On&off] 지역사회 산학협



‘지역사회협업(Unis+ry) 프로그램’ 업무 약정식

대교협 수시모집자료 분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험생 1인당 평균 4.73회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지원 횟수는 작년에 치러진 2020학년도 수시모집보다 0.01회 감소해 비슷한 수준이다.

수시모집 지원 인원은 44만8천678명으로 1년 전보다 10.4%, 수시모집 총 지원 건수는 212만1천694건으로 10.7% 각각 감소했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최대 6

회(산업대·전문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 제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입학전형을 밟을 경우 입학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 6회를 넘겨 지원한 수험생은 337명으로 집계됐다.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군에 1개씩만 지원 가능하다.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해도 이중등록은 불가하다.

대교협은 “수험생 스스로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모집 지원, 정시모집 동일 군 복수 지원, 이중등록 등의 대입 지원 방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